

중국 교회에 대한 15년 전 예측, 얼마나 이뤄졌나

하워드 스나이더 '21세기 교회의 전망'의 재조명

중국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이 이뤄지기 시작할 무렵 세계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중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 중 하나인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약 15년 전 펴낸 자신의 기념비적인 서적 '21세기 교회의 전망(Foresight)'에서 미래 세계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10가지 주요한 동향 중 하나로 중국 기독교의 부흥을 꼽았다. 그의 이러한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기독교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억압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속주의 등으로 인해 그 힘을 잃을 것인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중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당시 5천만명 가량이었던 중국 인구 가운데 5%를 차지했던 기독교인의 수는 현재 1억명 가량이 8%로 증가했다. 세계 인구로 볼 때는 전체의 약 2%에서 5%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 기독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

수가 없는 이상 이같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기독교가 성장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예측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은 그 가정이 현실이 된 현재 중국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기독교의 성장이 아직 완료점이 아닌 진행형인 까닭에 현재의 평가에 좀 더 여유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 중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에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게 될 영향에 대해 스나이더는 다음과 예측했다.

스나이더가 책을 쓴 것은 1986년이었다. 당시 중국 전체 인구 수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 기독교 인구 수는 2%에 불과했지만, 스나이더는 중국 기독교의 성장 속도가 세계 기독교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경우 이 비율이 바뀔 것이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중국 기독교의 강력함과 중국 본토 밖 중국 기독교인들에 의한 선교, 1997년 홍콩 기독교인들의 귀환에 주목했던 것이다.



중국 남장의 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

그리고 이후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여기에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자체 성장으로 인한 세계 기독교의 수적인 기여뿐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 기독교가 선교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제3차 선교중국 대회는 2049년경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면서 선교사 파송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선교계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확고하고 권위주의적인 중국 사회에서 국가와 그 기관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단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며, 이 점이 많은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중국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했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개인 관계와 공동체 관계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일체감과 친화력, 결속력은 분열된 사회에 환멸을 느끼던 많은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내에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중국 교회의 성장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적극적인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기념할 만한 것이다. 공산당 집권의 해인 1949년부터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79년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거나, 신앙을 잃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시기 중국 내 세례교인 수가 3백만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중국 교회가 억압에 대응하며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방식이 박해 받고 있거나 쇠퇴해가는 세계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주도한 가정교회 운동은 비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기독교 세계에서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스나이더는 언급한 바 있다. 끝으로 스나이더는 중국 교회가 유럽과 북미 교회의 전통 아래 놓인 세계 교회의 신학과 자기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당시 이미 남미의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지만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이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성장이자 30여년째 지속되어 오면서 오늘날에는 중국 교회의 신학이 점차 세계 교회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부상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중국 기독교가 유럽과 북미 교회의 한계인 개인주의를 보완하고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이루는 행동 양식을 갖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중심 삼고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중국 교회의 신학을 통해서 세계 교회는 초국가적인 보편적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오늘날 점차 자유주의화되고 양극화되어 가는 세계와 세계 교회에서 중국 교회는 이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손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2011 미 서부투어 막 내리



맑은 영혼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 18일 감사한교회에서 마지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13회 공연 통해 '희망의 노래' 선사

맑은 영혼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 2011년 여름 미주 한인들을 찾아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시애틀에서 시작해 북가주를 거쳐 남가주에 이르기까지 총 13회 공연을 펼친 선명회 합창단은 18일 오후 7시30분에 감사한교회

회(담임 김영직 목사)를 마지막으로 2011 미 서부 투어 일정을 마치고, 은혜로운 성가부터 한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듣는 이들에게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기쁨으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도 명성에 걸

맞은 화음과 음색으로 뛰어난 솜씨를 드러냈고, 특히 신명나는 부채춤 공연과 아리랑, 율곡이 등의 구성진 가락은 한국의 문화 대사로 손색없는 무대를 펼쳤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후원자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왔던 월드비전 한국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91년부터 후원국으로 지위가 바뀌어 전 세계 아동들을 돕고 있다.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은 월드비전 창립자,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가 전 생애 동안 가운데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선발해 1960년 8월에 창립했다. 이후 1978년 영국 BBC방송국 주최 세계 합창경연 대회 우승, 88 서울 올림픽, IPU 서울 총회, 각종 정상 방한시 특별 공연과 수 천회에 이르는 국내외 연주회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어린이 합창단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아 왔다.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 소프라노 홍혜경, 카운터 테너 이동규 등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는 성악가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토마스 맥 기자
thomas@chdaily.com

지난해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2,527개 달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난해 번역현황 보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지난해 12월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2009년보다 19개 늘어난 2,527개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6,600여개의 언어가 있으나,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경우는 500개 언어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0년 성서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10개 언어가 더 번역돼 총 469개, 신약은 18개가 더해져 총 1231개, 단편은 827개 등이다.

지난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바시아' 성서번역 프로젝트다. 추바시아(Chuvasia)는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 모스크바에서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2백만여명이 이곳에서 추바시아 언어를 사용한다. 20년 전인 지난 1991년 추바시아 성서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998년에는 예언서와 어린이 성경이, 2001년에는 모세오경이 각각 출간됐다. 그러나 번역가들은 이후 지체

서와 시편을 출간할 자금이 없음을 알고 좌절했다. 번역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있던 추바시아의 작가이자 교사인 에바 리시나는 이를 놓고 기도했고, 그러던 중 독일 라디오방송국에서 그의 연극 작품을 사용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이 때 수표로 받은 저작권료는 정확히 추바시아 성서 제작에 추가로 필요한 액수와 일치했다. 에바는 망설임 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작권료를 기부했다.

UBS 산하 성서공회들은 성경이 미번역된 4백여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TOLL FRE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신(신)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
연방법원 및 세무관할 관할변호사
미주한인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임원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s, Brothers, 칸우
국제거래/로스앤젤레스/이민법/세법 전문 변호사 겸 해설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

대표전화 213-380-2828

팔 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 밀알의 밤에서 '희망' 전한다

팔, 다리 없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사지 없는 인생(Life without Limbs) 대표)가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에서 주최하는 '밀알의 밤'에 메인 스피커로 출연한다.

닉 부이치치는 24일 오전에 JJ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체험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하며, 시종일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토마스 맹 기자

신의 경행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행복이 온다"고 간증했다. 특히 그는 팔, 다리가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당신이 어떠한 직업이나 학위를 갖든 상관없다. TV 스타가 될 필요도 없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 치유 받았다'고 고백

면서 "악마는 끊임없이 절망의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신묘마축한' 존재이며 항상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출간한 '닉 부이치치의 허그'(원제: The life without limits)를 소개했다. 책에는 얼굴과 맨몸뿐아니 뿐인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조건을 타고 났지만, 인생을 향한 열정과 유머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젊은이의 치열한 도전이 담겨 있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10월1일-2일 주님의영광교회, 베델한인교회에서

오는 10월1일과 2일에 각각 주님의영광교회와 베델한인교회에서 오후 7시에 개최되는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1년 제 14회 밀알의 밤'에서 강연을 펼칠 예정

그는 "돈이나 교육 등이 행복이나 평안을 줄 수 없다"면서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라"고 말했다. 팔, 다리가 없기에 절망에 빠졌던 자

美 아동 5명 중 1명 굶주린다

기독교 지지 단체, 재정 안전망 프로그램 중단할 것 촉구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 아동의 5명 중 한 명이 빈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기독교 지지 단체는 의회에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안전망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애니 케이시(Annie E. Casey) 재단에 의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미국 내 공식적 아동 빈곤 비율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8퍼센트 증가했으며, 본질적으로 20년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정의의 기독교의 네트워크 기구인 소저너(Sojourners)는 의회가 육아 보조금 같이 빈곤층 혜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저너의 대변인 팀 킹(Tim King)은 이번 연구 결과가 지난 10년 간 아동과 가정에게, 경제적 쇠퇴의 악순환이 매우 문제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킹은 크리스천 포스트를 통해, "1990년대에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

하고 있었다. 아동 빈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감소했다. 2000년 이후로 우리는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해 옴으로 지금 18퍼센트 증가라는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킹은 이 연구 결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성시켜야 한다. 둘째, 선출된 공무원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 2009년에 미국 내 42 퍼센트(3천1백만)의 아이들이 연방 빈곤선보다 두 배 더 낮은 수입을 지닌 가정 혹은 한해 수입이 43,512 달러 미만인 4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시 재단 정책개혁과 정보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로라 스피어(Laura Speer)는 언론을 통해 "최근 불경기로 인해 1990년 후반에 발생한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얼라이언스투엔드헝거(Alliance to End Hunger)의 크리스 라톤드레스(Chris LaTondresse)는 "미국 아동 5명 중 한 명이 빈곤상태라는 수치는 '물범의 사회'에 부적합하며, 5천만의 미국인과 1천 7백만의 아이들이 한 달에 몇 차례 굶주린 채로 잠 자리에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 결과는 경기 후퇴가 사회적 경제 등급에서 하위에 위치한 아동의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원은 저임금 아동은 오랜 후에 그들의 부모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기 쉽다고 결론 지었다.

브레드포터월드(Bread for the

World Institute)의 분석가들은 크리스토퍼포스트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레드포터월드의 정책 실장 마니 사카얀(Mannik Sakayan)은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경제 침체가 저소득 가정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왔던 바를 강화해 줄 뿐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상에, 브레드포터월드는 케이시 재단이 정책입안자들에게 빈곤 가정 지원을 위해 권고한 여섯 가지 방법을 게시했다.

- 실업 보험의 강화 및 현대화와 담보물을 찾을 권리 상실 예방 촉진과 치료 교육
- 빈곤층 임금 보충 프로그램의 보호와 강화, 높은 양육비의 차감, 부모와 아이를 위한 건강 보험 제공
- 저축과 자산 보호 장려와 가정

의 재정적 지식과 기술 획득 돕기
- 책임감 있는 부모 되기 독려와 임신부를 위한 태교
- 아동의 학업 수행을 위한 발달 준비

- 독해력 증진시키기
브레드포터월드 국내 정책 분석가 아멜리에 케건(Amelia Kegan)은 의회에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을 탈락시키지 않도록 촉구하며 기독교 지지 단체의 요청에 공명했다.

케건은 "의회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길을 모색하지만,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적자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장 파괴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로 가정들이 계속해서 겪어 온 고난을 그들이 진정으로 보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피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I-20발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 후 위크워크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충현선교교회, 26주년 기념 찬양예배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설립 26주년을 기념해 전교인이 참석하는 찬양예배를 21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교회 측은 "설립 26주년을 맞이해 이 땅에 탄탄히 세워진 청년 교회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종기 목사의 환영사 및 기도로 시작된 찬양예배는 총 14개 팀에서 19곡을 소화하며, 설립을 기념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축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모든 순서는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은혜로다' 찬양과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충현선교교회에서 설립 26주년을 기념해 찬양예배를 21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맹 광고국장: 이민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쿤란출판사

이해하기 쉬운
한 권으로 된 4복음서

본서는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10개의 큰 주제와 218개의 작은 주제로 분리하여 정교하게 조직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킹 제임스 흠정역 : The King James Authorized Version 성경 한영 대역본을 선정하여 본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 킹 제임스 성경은 주후 1611년 발행된 후 단 한번도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존된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본서는 주제별로 정리되었고 해설 및 주석이 첨부되어 기록된 4복음서를 위한 준비된 참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4복음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풍습, 문화, 정치적 상황, 종교적 환경, 지형 등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심중에 깊이 간직하며 각인하게끔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한 권으로 된 4복음서
! 성경의 중심, 주역의 핵심!
김신권, 최덕희 엮음

저/자/소/개

김신권 박사
미국, UCLA 및 CA 국제대학원(M.S. in Economics)
미국, 펜실베이니아 웨이스 신학대학원(M.Div., Th.M, D.R.E., 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M.A.B.L.)
미국, CGST 대학원(Ph.D.)
미국, PTSA 대학원(D.Min.)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C.E.)
미국, Fuller 신학대학원, Claremont 신학대학원 수학 브라질, 바타비아 신학대학원(영어박사)
파라과이, 소피아 신학대학원(영어박사)
미국,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Founder/설립총장
미국, Piedmont University, Chancellor/대표총장
미국, 교수협회 교수 자격증(ID:1058800)
미국, CSA 원전해석학회,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세계본부(KASMI), 상임본부장/CEO
나눔과 기쁨 미주본부(JSA), 본부장/CEO
미국, 한-육 기독교 연맹(AAKACA), 총재/CEO
750만 해의 동북특별자치 공동위원장
VISION 153 World Mission, 총재/CEO
미국,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목사/성경 및 신학 국제초빙전문강사
성경구조해석학, 리더십, 유대인 천재교육 등
20여 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 발표

최덕희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Th.M., D.C.E.)
CUTS 기독교교육학 교수/CUTS 잉기박물관 관장
미국, 피드몬트 대학교 교학과장
미국,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육부, 지도위원
미국, CA Fresno County Reedyly 한국이민기민 민족발달관 개설 국제멘탈링 회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본부(KASM) 홍보분과 위원장
나눔과 기쁨 미주본부(Joy of Sharing in America) 출판분과 위원장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창립의원 및 회장, 이사장 역임
미주 한인 초기 이민사로 연구
영문시, 수필, 이민 사료 다수 발표 및 대상 수상
한국, 서울 성동고등학교 교사 역임

이웃에 살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 귀한 선교 자원된다

한화 목회자 손선지 목사, "美 내 韓-中 협력이 中 본토 선교로 연결"



은혜여정교회 손선지 목사

소위 화교라고 하면 외국에 사는 중국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화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국인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개의 범주로 나뉜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사는 한인 1세와 2세가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한계가 있듯이, 전 세계에 13억이 넘는 중국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각지에서 널리 퍼져 살고 있는 화교간의 통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 손선지 목사는 이를 물과 기름으로 비유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화교이자 재한 중국인 2세 손선지 목사(은혜여정 교회-다이아몬드바 위치)는 미국 내 유일의 한화(한국 화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남가주에 이주해 온지는 1년 됐고, 전에는 시카고에서 5년 동안 한화교회를 섬겼다.

"한화라고 한다면 한국 화교를 뜻하는데, 고향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한국 냄새 풍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1980년대만 해도 6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만 명 정도로 2/3정도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대만, 미국, 중국 본토 등 전세계로 이민을 나갔는데, 미국에는 5-8천 명 정도 있습니다."

손 목사는 2005년도에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 '은혜의 여정'이라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뽕밭이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접하기 힘든 한화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품고자 기도하던 참에 응답 받은 것이 한화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직접 가서 전도 집회를 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2006년에 엘에이, 2007년에 아틀란타, 2008년에 시카고, 2010년에 한국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2011년 10월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준비는 집회 열기 1년 반 전부터 지역 크리스천 리더를 만나서 비전을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을 거친다.

"올해 은혜의 여정을 6번째 하나하나 사람들이 '손 목사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화들이 믿는 것은 자기 두 손, 두 발이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는 의식이 강합니다. 교회를 나가도 쉽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40대 초반부터 그 이후 세대까지 한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여정 없이는 이 사람들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7년의 '은혜의 여정'을 조금 다른 패

턴으로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손선지 목사는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성장과 성숙의 길을 열어왔다. 전 세계 구석구석 만방을 향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에 손 목사는 그 힘을 중국 사람들에게 썼으면 하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원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숫자가 미국에 오고 있고 정착하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위해 중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웃집을 향해 선교의 손길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복음의 영역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과 중국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오지에도 가는데,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면 중국교회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아웃리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K팝, 드라마 등 교회도 한류를 활용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 형태, 기도모임, 신앙생활 등 긍정적인 부분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다고 손 목사는 말한다. 손 목사에 따르면 이곳 남가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남가주에 사는 한국인 인구의 두 배 정도나 되지만, 교회 출석 인구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손 목사는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을 모임에 초청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한다. 중국인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활용해서 예배를 통해 이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끝으로 그들을 양육해 리더가 되게 해서 중국교회는 물론, 타 민족 교회를 세워주기 까지 복음을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 타 민족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 보았지만, 섬김을 제일 잘하는 곳이 한국교회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섬김을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중국인은 감정적인 것이 적고, 한국인은 많습다. 중국인이 보는 선교관, 한국인이 보는 선교관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혜의 여정 두 번째 단계는 협력입니다. 21세기는 협력해야 합니다."

남가주 다이아몬드바에서 목회를 시작할지 두 달 남짓 됐다는 손 목사가 소망하는 '은혜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새삼 궁금해지는 것은 왜일까?

토마스 맵 기자 ThomasM@chdaily.com

남가주동신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



남가주 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동신장학위원회에서 제 8회 장학생을 모집해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학 중인 켈리 한 양이 대표로 장학금을 받았다. 손병렬 목사는, "다른 사랑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맵 기자

미자립교회 위한 주일학교 교육 세미나 열려



무료 주일학교 교육 세미나가 20일 오후 1시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무료 주일학교 교육 세미나가 20일 오후 1시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전도사나 교사 없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미자립교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찬양, 설교, 성경공부, 행사 설명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하고 강연자로 나선 에스터 임 전도사는 장신대학교와 바울라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풀러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다. 토마스 맵 기자

캘리포니아 법원, 창조론 비판한 교사 사면

한 연방주지사는 역사 교사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논평을 하여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국교 조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미 제9연방순회합소법원 3명의 재판부는 그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 당시 미션 비에호(Mission Viejo)에 위치한 카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Capistrano Valley High School)의 학생이었던 채드 파난(Chad Farnan)이 그의 역사 교사 제임스 코벳(James Corbett)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2007년 가을, 코벳의 유류 역사를 수강한 파난은, 수업 시간 동안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경멸하며 비난하고 알뜰" 코벳의 언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첫 학기를 마치기 전, 파난은 그 수업을 철회하였으며 '국교 조항'(Establishment Clause) 아래 미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단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미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셀마(James Selma)는 코벳이 파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코벳이 보상을 지불하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며 면책을 구했을 때, 판사는 그것을 승인했다. 주디 한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페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세계예수선교신학대학교 학생 모집

WORLD FOR JESUS MISSION UNIVERSITY

학교소개

1. 본 학교는 예수님의 선교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2. 본 학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28:19-20)
3. 본 학교는 통신교육, Campus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4. 본 학교는 한국어나 영어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 본 학교는 능력에 따라 수시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6. 학업을 마친 후, 목사 또는 선교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 자격
B.A 과정	목회신학과	128	4	고졸
M.Div 과정	목회신학과	96	3	대졸
D.Min 과정	목회학박사	64	2	석사
D.Div 과정	목회신학박사	64	2	석사
D.T.S.	신학박사	64	2	석사

* 비학위 과정-평신도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연구과정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 (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 1통(본교 소정양식)
- 3)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촬영) 3매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목회신학석사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
-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6) 개인 신앙고백서 1통 및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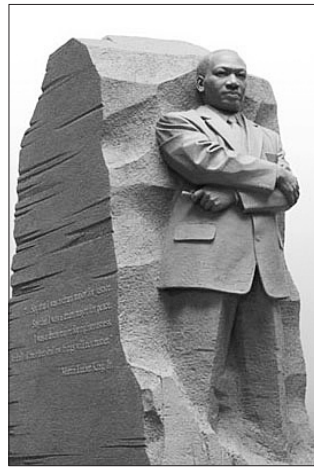
본학교 지원

1.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독교 사역에 불타는 소명이 있는 자
2. 장학금제도는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에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학교 학생은 부부가 같이 공부할 경우 한 분은 50%만 등록비를 받습니다.
4. 문의 연락처: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
Tel. 213.389.0258
Cell. 213.700.6100
담당책임자 David K. Yim(임순중) 목사

3350 Wilshire Blvd. #915,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U.S.A.
Tel: 213.389.0258 • Fax: 213.389.0258 • Cell: 213.700.6100



미주에배사역연구소대표 이유정 목사 설립예배가 22일 한빛지구촌교회에서 드러졌다.



9미터 높이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 석상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 기념관 개관 앞두고 설문... 흑백간 입장차 여전히 커

다. 이같은 입장차는 고용시장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데 고스란히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흑인들은 정부가 소수인종들이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백인들은 5명 중 1명만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백인 10명 중 3명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공군의 위생병인 코디 크자카(21세, 백인) 씨는 "모든 분리(차별)은 사라졌다. 이제 인종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차별은 철폐됐는가?이다. 설문에 응한 백인(90%)과 흑인(85%) 모두 "인종간 차별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 느끼는 "미묘한" 혹은 "여전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전역 1,391명의,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백인과 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8월 4-7일 실시됐으며, ±4%의 오차가 있다. 1963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 백인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만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같은 질문에 대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78%)의 백인들이 동일한 대답을 내놨다. 인종에 관계 없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직업이 동일하다고 적합한 자격과 능력만 있다면, 직업을 갖는 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흑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 1963년 당시 23%의 흑인들만이 "같은 조건에서 백인과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3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59%의 흑인들은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했

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조사 결과에서 보듯 인종에 관한 문제는 예민하면서도 흑백간 미묘하지만 확연히 다른 의견을 드러낸다. 시카고 로올라대학에 재학 중인 자레드 쿨리드(21세, 백인) 씨는 인종 문제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인종 차별주의자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수를 저지를까 봐 전전긍긍한다.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한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바튼 러우에 사는 윌리 벨리 리처드(70세, 흑인) 씨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책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인식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미국인들 가운데 70%는 그의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미국 내 인종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는 35%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41%는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킹 목사)는 미국에서 행해지던 많은 것들(차별)을 변화시켰다. 저는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들과 같은 거리에 산다. 모든 사람이 섞여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답한 아만다 켈렌스(27세, 백인) 씨는, 그러나 얼마 전 옆 블록에서 흑인이 난사한 총기에 사망한 백인 이웃의 사건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화가 나고 두렵다"고 덧붙였다.

쿨리드 씨는 "나는 아직 킹 목사의 꿈이 완전히 실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그가 지금을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현희 기자

열방을 향한 예비회복

의침이 시작된다!

미주에배사역연구소 설립예배, 구체적 비전 선포

미주에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지 교회 예배 부흥을 섬기고 열방 복음화의 주제로 예배 리더십을 일으키기 위한' 비전으로 예배사역연구소(미주 대표 이유정 목사)가 설립됐다.

해 주는 예배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필요한 때"라면서 "미주 예배사역연구소를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예배의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회 안의 말씀이 예배에 스며들고, 교인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22일(월) 오후 6시30분 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알린 이유정 대표의 "미주에배사역연구소는 미주 한인 교회는 물론 6천여개의 지구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 시작됐다"며 "한류를 등에 업은 디아스포라 사역은 블루 오션이며, 선교적 잠재력이 대단하다. 이를 위해 한국 예배사역연구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디아스포라교회에 적합한 예배 프로그램과 학교 등을 연구 개발해 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연구소 소개 시간을 통해 이유정 목사가 인사하고, 최지호 목사(한국 예배사역연구소 대표)가 동영상을 소개하며, 박현수 목사(위싱턴소망교회 담임,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에는 한국과 미주 예배사역연구소 소개와 김영관 집사의 광고가 있는 후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는 7시30분부터 9시까지 열렸으며, 리버티 예배학 과정 신학생들이 참석했다.

간담한 다과 후 제 2부로 시작된 설립예배는 장재영 목사(영생장로교회 워싱턴지부)의 찬양, 이성의 장로(올네이션교회)의 기도, 세소폰 연주에 데이비 톨러(David Tauler, House of echo), 장세규 목사(한빛지구촌교회)의 설교, 김재덕 교수(리버티신학교)의 축사로 진행됐다.

"모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자 세우기를 사명으로 여기는 예배사역 연구소는 "모든 크리스천의 예배정신 구비, 전인적 예배사역 연구 개발, 미주와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 건강한 예배 사역 일으키기, 평신도 워십리더 모델 개발해 전세계 중소형 교회에 확산시키기, 예배인도자의 성경적, 신학적 깊은 영성 구비하기, 예배팀의 음악, 영상, 예술적 탁월성 개발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장세규 목사(한빛지구촌교회 담임)는 골로새서 3장 15절~1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등으로 표현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오는 8월 28일 열리는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애플랜드 태생 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기념관 개관식을 앞두고, USA투데이와 갤럽이 공동으로 "킹 목사의 꿈은 실현됐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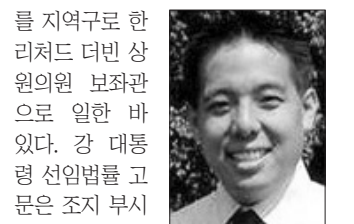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질문은 과연 킹 목사가 꿈꿨던 것처럼 "인종간 차별은 철폐됐는가"이다. 설문에 응한 백인(90%)과 흑인(85%) 모두 "인종간 차별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 느끼는 "미묘한" 혹은 "여전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전역 1,391명의,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백인과 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8월 4-7일 실시됐으며, ±4%의 오차가 있다. 1963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 백인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만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같은 질문에 대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78%)의 백인들이 동일한 대답을 내놨다. 인종에 관계 없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직업이 동일하다고 적합한 자격과 능력만 있다면, 직업을 갖는 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흑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 1963년 당시 23%의 흑인들만이 "같은 조건에서 백인과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3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59%의 흑인들은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했

동안 입법보좌관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소나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 대의회 설득 작업에 참여하며 사법부 인선에 관여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강은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오바마 부부와는 강 씨가 시카고대 학부 시절 학생처장으로 있던 미셸 오바마와 만난 인연으로,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인 오바마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로스쿨 재학 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2001년 변호사가 된 후 일리노이주

한국의 크리스토퍼 강 씨가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으로 17일 임명됐다. 강 씨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백악관 입법 보좌관으로 일해오다 이번 인선에서 요직으로 발탁됐다. 선임 법률고문으로서 그는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 판사를 비롯, 사법부 고위직 인선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연방 판사가 크리스토퍼 강 씨의 손을 거쳐 결정되는 셈이다. 크리스토퍼 강은 전임 되었던 수잔 데이비스 전 선임고문은 올 가을부터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일하게 된다. 크리스토퍼 강은 그

강영우 박사 차남, 백악관 선임법률고문 발탁

▷ 크리스토퍼 강, 오바마 행정부 입법보좌관으로 일하다



크리스토퍼 강

를 지역구로 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강 대통령 선임법률고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7년 간 백악관 직속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와 인디애나 공립학교 석사 학위 종신 교사로 은퇴한 석은옥 여사 부부의 차남이며, 형 골 강 씨는 백악관 근처에 위치한 안과병원에서 안과박사로 활동, 미 안과계 최고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권나라 기자

세상이 꿈꾸는 도시 - 지웰시티 **well city**

대한민국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세종시가 인접해 있는 초특급 로케이션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지웰시티**

단지 앞 증부권 최대규모 현대백화점 2012년 오픈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배후도시, 고령층 상류사회가 펼쳐진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 지웰시티

Office: 562.824.4989

혜택1. 20만 투자에 3.5% 연 배당금 2년간 보장
혜택2. 전세보증금제도와 선순위 대출 책임
혜택3. 매매대행 제도 운영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지웰시티를 **뉴스타 부동산이 자신있게 분양합니다**

이상규 DRE License #: 0135612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818.439.8949 Josephlee@newstarrealty.com

김현숙 DRE License #: 0144846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661.313.0977 Hyunkim@newstarrealty.com

Location 트러플 프리미엄을 누리는 증부권 최대 허브 도시

Landmark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15만명의 푸른섬

Special Plan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High Society 호텔보다 품격 높은 상류사회 자부심

198.23m² (2,100sf)

중추력과 격조 높은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

정식 요소를 최소화한 정제된 공간에 조명의 감아를 이용하여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Yellow와 Brown의 컬러톤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서도 격조 높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이웃과 교류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용객외화장과 주민문화센터 열람실, 문고, 어학학습실, 스티디실로 이뤄진 단지 내 도서관

워크밸리의 연결 되어 쇼퍼센터, 편의시설 등이 즐비한 선권광장

주거동 전체 필로티지와 고급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 호텔식 로비

그랜드 카페, 클래식바, 라미팅 포레스트, 리버사이드 등의 지연 친화적인 단지

상기 위치 및 이미지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계획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IS ADVERTISEMENT IS BASED ON INFORMATION GIVEN BY WELL CITY. THEREFORE, NEWSTAR REALTY & INVESTMENT IS NOT RESPONSIBLE FOR ABOVE ADVERTISEMENT. ABOVE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뉴스타 부동산은 세종시에서 개발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 리플렛이나 팸플릿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본 광고에 대한 책임은 본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경고: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HAS NOT EXAMINED THIS OFFER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DITION OF TITLE, THE STATUS OF BLANKET LIENS ON THE PROJECT (IF ANY), ARRANGEMENTS TO ASSURE PROJECT COMPLETION, ESCROW PRACTICES, CONTROL OVER PROJECT MANAGEMENT, PARTIALLY DISCRIMINATORY PRACTICES (IF ANY), TERMS, CONDITIONS, AND PRICE OF THE OFFER, CONTROL OVER ANNUAL ASSESSMENT (S IF ANY), OR THE AVAILABILITY OF WATER, SERVICES, UTILITIES, OR IMPROVEMENTS. IT MAY BE ADVISABLE FOR YOU TO CONSULT AN ATTORNEY OR OTHER KNOWLEDGEABLE PROFESSIONAL WHO IS FAMILIAR WITH REAL ESTATE AND DEVELOPMENT LAW IN THE COUNTRY WHERE THIS IS SITUATED.

주체할 수 없이 뛰던 심장소리에서 시작됐다.

New Beginning

책 출판한 메릴랜드 뉴비기닝처치 최요셉 목사

메릴랜드 2세 교회인 뉴비기닝커뮤니티처치 담임 최요셉 목사. 한때 영어회화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태권도사범으로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 목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방도가 없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일 뿐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 믿어요”

메릴랜드 2세 교회 뉴비기닝커뮤니티처치(New Beginning Community Church) 담임 최요셉 목사의 말이다. 지나치게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특별하게 들린 이유는 최 목사의 지나온 삶의 간증을 듣고 나서이기 때문이었다.

부르심, 주체할 수 없이 뛰는 심장소리를 듣다 최 목사에게는 직업이 많았다. 영어회화학원 매니저, 태권도 사범, “신학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리 조리 잘도 피해나가던 젊은 날이었다.

서울 신촌 잘나가는 영어회화학원 매니저로 이름을 날리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거머쥐기도 했던 그가 어느날 주일 아침, 심하게 두근 거리는 심장 소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해서 “나, 교회는 가느냐?”는 어머니의 독촉(?)이 있었지만 늘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그였다.

그런데 그날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지금 생각하면 분명 성령의 강한 터치하심이었다. “돈도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듯 느껴졌다. 그래서 2주 만에 잘나가던 회화학원에 사직서를 던졌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입으로 받을 땅에 나갔던 아브라함 같았다면 그 때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충분할까?

“그렇게 미국에 왔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짧은 열기에 버는 만큼 쓰면서 저축은 많이 해두지 못했던 연유였다. 막상 살 길이 막막해지자 처음에는 원망도 했다. “나를 왜 미국에 부르셨나요?”

그러다 시작한 것이 플로리다주 태권도장이었다. 태권도와 인연이 깊은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태권도 집안이다. 큰 형이 제 1회 세계태권도연맹 1위를 거머쥔 챔피언이었고, 둘째형과 셋째형 역시 내셔널 챔피언, 미국 챔피언을 거머쥔 태권도 ‘왕’이었던 때문이다. 태권도 5단에 합기도 3단, 킥복싱까지 마스터한 그가 선택한 태권도장 사

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해, 결국 15명 스태프를 둔 350명 회원의 대형 태권도장으로 성장했다. 들어오는 스태프 마다 전도했고, 태권도장 내에 기도실을 따로 두면서 신앙의 성장소로도 한 몫했다.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다
“사실 태권도 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시다. 딱 10년 만 태권도장 사범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이끄시라고. 무



2011년 6월 5일 창립예배를 드린 메릴랜드 뉴비기닝커뮤니티처치의 예배 모습. 2세 교회 뉴비기닝처치는 함께 2세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헌신할 1세들을 찾고 있다.

조건 따르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일이 터졌습시다.”

그가 태권도장을 시작한 해가 1996년이니, 10년 후는 2006년이다. 그 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스텝 중에 도박중독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개인 수표를 조작해 도장 돈을 빼돌렸고, 2주 만에 전 재산에 달하는 수십만달러를 잃었습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무심하리 만큼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웃으며 “절대 계약 기도는 하면 안돼요”라고 했다.

금방 태어난 몇몇이 아이까지 3명, 당장 자기 입은 고사하고 딸린 처자식의 입에 풀칠할 단 돈 50불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가 신학교를 갈 결심을 한 것은 태권도장이 한참 성공가도를 달리던 2001년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신학교를 가라” 말씀하셨고, 그의 아내도 동일한 응답을 받아 결정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조금씩 이끌고 계셨다.

“나, 나를 믿느냐?(Do you trust me?)”

그 때의 일을 떠올리면 힘들었던 기억이긴 하지만 최 목사의 얼굴엔 미소가 띄어진다. 이유는 “가장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번은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는 데, 어떤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가진 돈 전부를 헌금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내도 동일한 마음을 받았어요. 단 돈 50불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 이 사건 터진 것 아니잖아요?’ 되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믿느냐(Do you trust m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중에 이상하게 제가 50불을 보면, 아내는 100불을 보고, 제가 100불을 보면 아내는 200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얼마되지 않는 돈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 재산을 헌금한 지 2 주 만에 집으로 보증수표(Certified check)이 날아왔다. 정확히 내어놓은 돈의 2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최 목사 부부의 믿음을 조금씩 키우고 계셨던 것이다.

“2세 교회 개척, 그리고 무보수를 결정하기까지”

2세 교회 개척을 위해 청빙목회자를 찾던 허재범 전도사를 만난 것이 1년 반 전이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뒤에라야 움직이는 최 목사의 성격상, 처음에는 “하겠다”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 비전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좋아요.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6개월 여 간의 기도장정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다시 최 목사에게 물으신다. “나, 나를 믿느냐?(Do you trust me?)”

“하나님, 저 메릴랜드에 온 지 3년도 채 안됐습시다.”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는 지 기억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과 그의 실랑이(?)는 어김없이 이어졌지만, 늘 그랬듯 이번에도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리고 2세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 비전은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자라는 큰 기동 하나가 아닌 4개의 기동(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랑, 창조적 아웃리치)으로 연결된 집 모양으로 지붕 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새겨져 있었다.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이혼변경\$290
-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20년은 걸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사건, 번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본도 P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하루 30분 걷기’ 가 건강장수 디딤돌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만인의 소망일 것이다. 지난 20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이자 노화방지 및 치료의학에 종사하는 헬렌 권 전문의(오하이오주 세미나 강사)를 초청 “건강을 위한 생활 양식 및 치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화방지 및 영양 장애로 오는 신진대사 부진 예방과 치료의학에 대해 강의한 권 전문의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고른 영양 섭취와 운동,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는 음식은 콜레스테롤, 체지방 수치를 올려 고혈압을 일으키며, 근육이 감퇴되고 스테미너가 저하됨으로 섭취를 피해야 한다”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 가능한 산성음식 보다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했다. 권 전문의는 “가장 효과적인 일상의 운동은 하루 30분 걷는 것”이라며 “또 건강을 위해서는 발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사지 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워싱턴가정상담소, 헬렌 권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권나라 기자 nrkwon@chdaily.com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평의회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파블로스 오르티즈 박사
브레노스 아이레스의 영명 운동의 주메이카 20세기의 성경적 제2차의 영성사이다. 영명적 교회성장, 제2차의 영명 운동을 주제로 전세계에 나가 리드십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그의 영명적 TV를 통하여 방영되었으며, 그의 책 '제2차의 영명' 출판 이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세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명, 교회성장, 제2차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역영역과 내역지역의 세계적인 연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내역 지역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상처를 자유여시는 아나니', '사역의 영을 대역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적' 등의 책을 한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영명력을 미치고 있으며 연세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역지역을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장으로 전세계의 가장 영향력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등의 지도자들에게 강력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 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번약 시키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믿지않는 기쁨', '제도전도', '사역의 기쁨부족', '번약'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와 미 문교성 (USDE)으로부터 공인 승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이로써, 아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탈벗신학교,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학점
학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임업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희 계장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평의회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불어권 아프리카, 이렇게 선교하자

〈지난호에 이어서〉 권형준 목사 - 북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름은 언급할 수 없다.

이슬람이 98% 이상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중요하다. 언제까지 열려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선교학자들은 곧 닫힐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Q) 선교 전략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아래쪽으로 가보자. 접전지역으로 내려가보면, 많은 나라가 있고, 권목사님이 사역하던 카메룬이 있다. 접전지역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달라.

권형준 목사 - 말 그대로 밀고당하기를 하고 있다. 카메룬 뿐 아니라 주변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메룬은 중북부, 허리부분 이상이 이슬람 국가와 다름없다. 가나도, 토고도 북쪽이 이슬람교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이슬람교가 내려오고 있다. 카메룬은 중북부, 남부, 서북부 다 다른데 지역적 특색 때문이다. 한 나라지만 모자이크라고 불릴만큼 부족, 언어, 종교, 기후도 다 다르다. 한 쪽은 열대우림 기후다. 서북쪽은 저녁에 벼나로를 틀어야 할 정도로 춥다. 북쪽은 사반나 기후 사막성 기후다.

이슬람권 지역을 놓고 볼 때에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개종 후 삶이 막막하다. 명예살인은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을 얻기 어렵다. 그런 지역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영접 이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

Q) 접전지역 중 한 나라를 전략적으로 택해서,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달라.
양승훈 선교사 - 실질적으로 차드나 무슬림 국가이긴하지만 접전지역인 이유는 이렇다. 카메룬 북부 지역 많은 부분이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차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슬람은 서진중이다.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만나는 지역이 차드이다. 어떤 나라보다는, 접촉 지점 라인들이 중요한 사역지이다.

권형준 목사 - 중서부 아프리카를 나눠보면 두 블록이다. 중앙 아프리카의 화폐 단위 중 '세파라'는 단위가 있다. 6개국은 돈이 똑같다. 서부 아프리카에는 자국 화폐를 쓰는 나라가 6개다. 카메룬 사람을 다른 세파라에 보낸 적이 있는데 비행기 요금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 불력을 들로 나눠서 전략국을 따로 따로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부르키나파소

를 말하고 싶다. 그쪽 여러나라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부족마다 세계관과 기질이 다 다르다. 이 중 부르키나파소의 모시 부족은 신실하다. 나라 이름 자체가 '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다.아프리카에서 듣기 힘든 이름이다. 부르키나파소에는 주변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실함을 가진 좋은 인물들이 많다. 기독교 배경이 너무 약하면 외부 도움만 갖고 되지 않는다. 현지 교회의 힘이 필요한데, 열심과 교회 힘이 합해지면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 중북부, 차드를 꼽겠다. 그곳을 타겟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양성하면 좋은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카메룬에서 많은 인력들이 나오고 있지만 북쪽에는 이슬람이 매우 강해서 북쪽 출신이 거의 없다. 상주 선교사 또한 없다. 그 지역이 차드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언어도 통한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중앙아프리카권의 사역자를 만드는 전략적 지역이 될 것이다.

미전도종족의 종교적 배경은 이슬람교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선교하면 좋다. 물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주면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것도 가능하다. 깃발을 꽂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교가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 기독교도 그렇게 하면 집단 전도가 가능하다. 미전도종족들은 이슬람 색채가 강하지 않다. 이슬람교가 전통이지만,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면 마음을 건질 수 있다.

Q) 양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을 많이 하는데, 설립 1년 후 자립한다고 하셨다.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학교 사역은 기독교 교육의 보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고의 학교 보다는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은 기독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학교 개척 운동은,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물을 마련하고 1년간 교사 인건비를 후원한다. 그 후에는 학비를 받아서 교사 인건비를 지불한다. 이렇게 자리하면 직접 학비로 학교를 지어어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한다. 개교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재정은 한화로 1천만원 정도다. 교실 2개와 사무실, 교사 인건비 1년 지원을 합해서다.

컨퍼런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안을 갖고 시작했다. 교회 선교부와 제과 갖고 있는 안을 점검받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각 나라의 유망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파리에서 단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었다. 2-3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어떤지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받고 싶다.

양승훈 선교사-그런 전략이 현장 선교사로서는 기대된다. 현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답이 나온다. 훈련된 선교사들이 떠나도 안목을 지닌 리더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또 한가지는, 각 지역 현지인 리더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정보와 자기들의 전략을 개발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전략을 모색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개인과 현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지만,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리더를 모아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대되고, 이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권형준 목사- 파리에 가면서 꿈꿨던 일 중 하나다. 그러나 자체적 역량으로는 안된다. 목회에 집중하다보니 환경 조성이 잘 안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굉장하 좋고,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세네갈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 리더, 아프리카 리더들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현지인 리더끼리 만나는 일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분들이 외국인이다보니, 부모 같은 선교사들과 있으면서도 같음이 있다.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면 답을 찾기도 한다. 서로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역 교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다. 첫째, 파리에 왔을 때 단기로 오더라도 현지인 리더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모인다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지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한인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고 싶는데 선교사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선임권이 없다면 좋겠지만 기우나 복잡한 정치적인 생각을 할 경우도 있다.

Q) 미동부 한인교회들과 파리 한인교회들의 연합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파리 한인교회들의 선교 성향과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동부 한인교회들과 연합이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지도 말해달라.

권형준 목사- 선교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지, 한인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면 말하기가 어렵다. 파리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각기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선교사 신분으로 목회에 주력하고 있어서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데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 단기선교도 늘어나고 파리포럼이나 청소년 연합 집회 같은 일들을 치렀다.

각 교회마다 해운일 이 있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연합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깊이 연구해서 원-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 각각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오랫동안 그분들이 생각하던 것도 있고, 나름대로 깊이도 있어서 지역은 작지만



(왼쪽부터) 진행 한규삼 목사, 권형준 목사, 양승훈 선교사

연합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Q) 이 외의 질문

물가 수준은 어떤가. 달러 기준으로 중산층 4인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드나.

양승훈 선교사 - 아프리카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지인들은 한 달 1백불로 어렵게 산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싸지 않다. 세계 도시 가운데 외국인이 거주할 때 물가가 비싼 나라다. 모든 공산품이 비행기나 육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비싸다. 시멘트의 경우 한국보다 6배 비싸다. 1백불로 대학노트 10권밖에 살 수 없다. 공산품 물가는 비싸고 농산품은 싸다.

현지화되어 사는 것이라면 한 달 120불정도 든다. 독신 선교사일 경우 한 달에 120만원, 4인 가족이라면 240만원이 필요하다.

도전을 주는 말씀은 부탁한다

양승훈 선교사 - 불어권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참여해달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현지를 방문하면서 기회되는대로 선교에 동참하시면, 물질기가 지속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도 제목은, 현지에서 지내면서 건강이 약화됐다. 치료가 되어 선교지에서 중단하고 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윤주이 기자

뉴욕목사회 임신행위원회 개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가 제39회 임신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 제39회 임신행위원회가 8월 22일 오전 10시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김영환 목사(총무)의 인도로 진행됐다. 노기승 목사는 (협동총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새야 6:1-6)' 말씀을 전

했다. 목회자들은 교협 활동루아 대회를 위해, 목사회 목회자 세미나, 체육대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임신행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6월 29일 두차례 진행된 베어마운틴 기도회, 5월 11일 교회성장 세미나, 6월 7일 미동부지역연합 체육대회, 7월 11일 목회자세미

나가 그동안 사업으로 보고됐다.

뉴욕목사회는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알리폰드파크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갖는다. 이창남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의 자리"라며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이 기자

먹고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약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빈비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팝니다.

충분한 워런티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DC)

John Ko
TEL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8월 29일 (월)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장학생 선발공고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자: 석사, 박사 00 명
자 격: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자로 토플 iBT 88~89 이상인자
2. 최종학교성적이 3.7 이상인 자
3.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학점
석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과과 김은의 계장

쉐퍼드대학교는 ATS 회원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당뇨,고혈압 전문 한의원

전 세계에 알립니다. 당뇨, 고혈압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싶은분은 빨리 예약하셔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8/31/11 11시까지 전화예약 하는분에 한해서 각종 프로그램 60% Off 해 드림

이번주 강의: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도 당뇨,고혈압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약을 거의 다 끊고도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 Radio Interview에서...다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등의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약은 빠른증상 개선은 좋지만 장복하다보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해방될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이 좋은겁니다. 당뇨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괴사,심장병,뇌경색,중풍으로 고생하다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합병증의 고통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지식의 무지에서 탈피해야되고 무분별한 음식섭취, 잘못된 지식을 바로 이해해야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자연의 원인치료를 하게되면 놀라운 내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놀랍고도 경이로와하는 특별기획, 봉사를 통해서 소중하고도 뜻깊은 만남, 놀라운 치료의 기회시간을 갖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높은이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자연진료방법,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기술, 수많은 임상사례, 그냥 세월가다 망막증,다리괴사,신장병,절단등의 불가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몸,건강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희생속에 얻은일은 기쁘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준비된 생활,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잘못과 화를내고 실망을 하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생각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장기도 약해지고 아파합니다. 노력하고 사랑하고 근면하고 훈련된 절제의 생활,이해와 인내와 바른관계와 생활, 올바른 모습,약속된 능력,자기의 정체성 또한 준비된 생활이 건강도 또한 바르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방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것을 좋아할수있는 부정속에 긍정과 가르침을 알고 내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몸은 스스로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더이상 실수했던것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발전속에 새로운 것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새롭게 원하는 평안의 마음과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려워말고 걱정하지말고 자연의 한방요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선택을 알고 우리몸을 기쁘고도 기쁘게...건강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 놀라운 한방의술로 고통과 불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신뢰와 유익한 건강이 되도록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연구하는 한의원으로 서 있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힘든 질병에서 벗어나게끔 믿기 힘든 획기적 증상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 세계속의 한의원

각종 프로그램 소개

1. 강심장 청소혈관 프로그램 (심장을 건강하게)
2. 복부비만 관리 프로그램 (날씬하고 아름답게)
3. 간장해독, 맑은눈 증상개선 프로그램 (맑은 눈이 필요)
4. 오십견,요통,Disk,좌골신경통 프로그램 (빠른 증상개선)
5. 암예방 면역강화개선 프로그램 (면역력 증강개선)
6. 건강한 폐,알러지,기침,해수개선 프로그램 (폐를 강하게)
7. 요실금 개선 방광염개선 프로그램 (여성이 꼭 필요)
8. 화끈거리는 갱년기 증후군,골다공증개선 프로그램 (자연적으로)
9. 획기적인 장수건강개선 프로그램 (몸을 보하면서 편하게)
10. 어린이이 성장탕,총명탕,아토피개선 프로그램(너무 좋음)
11. 자연미인 프로그램 (아름다운 피부,가슴관리)



1예 - 당뇨병 당뇨병으로 6달정도 복용하던 중 청한원에서 3개월 치료후 다 알약끊고 공복수치가 120정도 정상수치로 되었음. 본인은 너무 감사해 함	2예 - 당뇨병 당뇨병으로 한쪽눈이 안보이고 심혈관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리가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음. 5개월 치료후 당이 400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110 정도 일약 다 끊고 이루 말할수 없이 감사해 함.	3예 - 고혈압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도 190/110정도 3개월 치료후 약 다 끊고 수치가 121/80 정도 나옴. 본인도 기적과도 같다고 너무나 고마워 함.	4예 - 흉통 원인 모를 가슴통증으로 25년간 온갖치료 무효과 여기서 한약 복용후 1개월 후 모든증상 사라짐 남편 할 어떻게 이런일이 이세상에...	5예 - 대상포진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따갑고 가렵고 힘들어했음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거의 증상이 사라졌음 너무나 감사해 함.
6예 - 요통 고령의 할머니 허리통증으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괴로움 호소, 특수침 맞은후 15분후 별떡 일어났다. 앓았다하면서 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7예 - 불임증 15년 환자가 찾아와서 임신이 안됐다가 한약 복용후 아기 낳아서 너무나 감사해 함. 이때 한의사 보람을 느낌	8예 - 현기증 3년간 너무나 어지러워 앞도 안보일 정도로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그 증상이 사라짐.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 함.	9예 - 성인병 할아버지 당뇨,고혈압,고지혈증 중성지방으로 수년간 약 복용 3개월 치료후 약을 다 끊었음. 병원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함.	10예 - 피부병 3개월간 피부병으로 온갖치료 무효과 본원에서 치료후 그 무시무시 살벌한 피부가 뽀얗게 나타나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에 감탄.
11예 - 부인병 한 여성이 찾아와서 자궁수술 해야 된다고 걱정, 한약 2재 복용후 병원검사에서 모든것이 정상, 수술 안해도 된다고 판정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 함.	12예 - 전립선 전립선으로 2번이나 수술후 피가 소변에서 철철,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꼬박 못잠.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피가 뚝 멈춤. 참으로 한약 대단하구나 스스로 감동 또 감동...	13예 - 성장부진 어린아이가 밥도 안먹고 자라지도 않고 너무나 걱정 여기서 한약 복용후 너무나 밥을 많이 먹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감사에 또 감사..	14예 - 좌골신경통 너무나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엉덩이가 뽀개지고 다리가 저려서 피 말리고 이가 갈린다고 별치료 다 해봤지만 무효과,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그 고통 사라지다니...	15예 - 치질 밥 못먹고 변비,설사,치질 심장이 빠근 죽을것 같은 이 증상 사라지니 세상이 다시금 고마워짐

청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100% 순수한 천연 생약으로 근본적으로 혈당조절을 도와주며 혈액순환과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인체의 자생능력을 도와 스스로 인체가 균형을 잡아 증상개선을 시킴. 특히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힘든증상, 눈이 침침하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손발이 저릴때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병을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면서도 합병증으로 심장병,뇌경색,눈이 잘 안보임,다리괴사절단,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신경염등으로 무척 고생하는데 혈관이 경화되고 노화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줄이거나 해방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운동으로 무척 노력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는데 당뇨신선단은 자주 배고픈 증상, 저혈당증상을 도와주고 체중조절 및 복부 비만을 줄여주고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면 의사선생과 상의하에 서서히 알약을 줄여주며 많은 경우에 당뇨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다 벗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십니까? 약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정상혈당을 유지하면 그 무서운 합병증에서 미래의 두려움,걱정,Stress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많은 당뇨환자들이 대책없이 약에만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서 눈이 안보이고 신장투석하고 다리절단,심장병,뇌졸중으로 무서운 앞날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복용사례> LA북쪽 Valley에 사는 Mr. Lee씨는 당뇨로 15년동안 알약을 매일 4알을 복용하면서 눈도 잘 안보이고 이제는 합병증이 온다고 무척 걱정했는데 신선단 복용후 거의 알약을 안 먹고도 아침공복 혈당이 120정도± 되서 정말 믿을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말하면서 특히 병원에서 이제는 인슐린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같이 축하해주었다고 말했고 또한 체중도 10LB 정도 빠지고 기운도 최고인 상태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이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했는데 주위에 친구 형제중에 알약도 3알 정도인데도 레이저수술 몇번후에 눈이 잘 안보이는분들이 있는데 하루 빨리 권해주고 싶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Diabetes damages the endothelial of the arteries, choking off blood flow to the hear(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뇨병은 혈관 내역을 손상시키고 심장의 혈관흐름을 막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그 무섭고도 무서운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슬프고도 슬픈 후회가 되는 시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보지못한 당뇨신선단과 함께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 을 참조 / 24시간 주문 전화 714.636.1412 / 대리점 하실분, 돈 버실분 전화요망

42년 독재 벗어난 리비아 교계, 종교 자유 갈망

복음 전파 권리를 보장해줄 정권이 들어서길 기도 중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21~22일(현지 시각) 이뤄진 나토(NATO)군과 현지 반군의 공습으로 점령됨에 따라 무아마르 카다피의 42년 철권통치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리비아의 재건과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군을 이끌고 있는 과도국가위원회(NTC)와 포스트 카다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 교계는 앞으로 찾아올 변화가 리비아 교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리비아 현지 교계 지도자로, 미국 남침례교회(SBC) 국제선교부(IBM) 협력 사역자인 닉 립켄(가명) 목사는 이 교단 언론인 벨트스트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리비아의 안정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안정이 예수로 나아가는 국민

의 권리를 막는 정권만의 안정이라면 이는 지금껏 없었던 최악의 박해가 될 것"이라며 "로마제국 아래서 초대교회들이 누렸던 것과 가졌던 것과 같은 복음 전파의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립켄 목사는 이같은 기도 제목은 리비아뿐 아니라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은 다른 중동·북아프리카 교회들의 기도제목이기도 하며, "전 세계 교인들이 리비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 권리로 인정되는 변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향후 세워질 새로운 정치 체제가 종교자유를 억압한다면 현지 교계는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막는 모든 박해자들에 동

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랍월드미니스트리즈(AWM)의 데이빗 인스 디렉터는 이와 더불어 혼란한 정세 속에서 리비아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 역시 요청했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랍권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담대히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불확실함의 기간 동안 이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에는 알려져 있는 기독교인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며 "수에 있어서는 매우 적지만 이들이 주의 권능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해서 앞으로 리비아에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리비아가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리비아는 인구 97% 이상이 무슬림이고, 이에 비해 극히 소수인 3% 가량을 차지하는 타 종교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 기독교 인구 중에는 콥트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각각 6만여 명, 4만여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며 그 외에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매우 적은 수지만 증가하고 있다.

순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이라크, 또다시 교회 대상으로 테러 발생 백인들, 저학력일수록 종교 버릴 확률이 높다



테러가 발생한 교회들 중 한 교회의 모습

이라크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연쇄테러가 다시금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6시 이라크의 북부 키르쿠(Kirkuk)에 위치한 한 시리아 천주교 교회(Syrian Catholic Church)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23명이 부상당했다. 부상당한 이들 대부분은 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으며 폭탄이 터지는 당시 교회 내부에 있던 이마드 알다 신부도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에 이어 키르쿠에 있는 한 성공회 교회와 마르쿠르시스 교회(Mar Gourgis church) 인근에서도 폭탄이 실려있는 차량이 발견됐다. 이 차량에 있던 폭탄들은 다행히 보안요원에 의해 조치가 취해져 폭발하지는 않았다. 키르쿠의 경찰 총수는 연이어 발생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폭탄 테러의 대상이었던 교회의 하이델 아르람 목사는

테러범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라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는 한때 140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난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 심각하게 약해지기 시작하여 1백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의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피신했다.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의 과격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로 규정하고 테러를 자행해 왔으며, 이라크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국 정부에게 기독교인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건을 비난해 온 바그다드에 있는 성 조지 성공회 교회(St. George's Anglican Church)의 앤드류 화이트 목사는 핍박이 기독교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10월 이라크에서는 알 카에다와 연루된 무슬림 과격분자들이 바그다드의 구원의 성모 천주교 교회(Our Lady of Salvation Catholic Church)에서 인질극을 벌여 52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기독교인을 상대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하고 희생자가 많이 나온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키르쿠에서 3개의 교회를 상대로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한 2일 당일 바그다드의 법정은 2010년 천주교회 인질 사건의 피의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이라크의 인구가 3,147만 명이며 인구 대다수(95.9%)인 3,018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반면,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9%인 50만 명에 불과하다고 기록했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일수록 종교를 버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고 미국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경기 불황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를 통한 사회적인 활동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각) ASA(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백인 미국인들의 종교 의식(예배) 참여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학 학위를 가진 고학력 백인에 비해, 저학력 백인들의 경우 그 감소 비율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 수입과 교육 수준에 따라 종교성에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됐다.

1970년대 조사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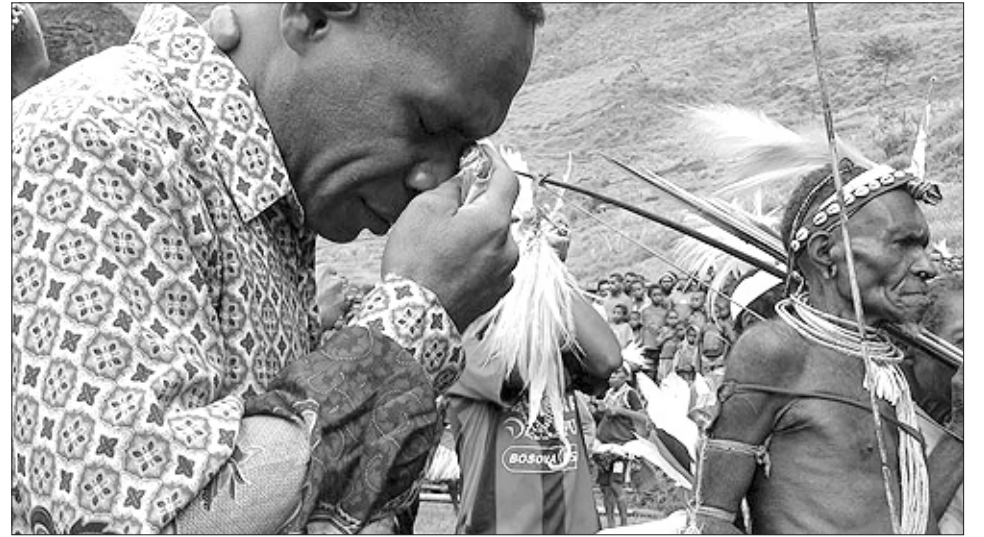
저학력 백인들의 38%,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은 중간 학력 백인들의 50%, 4년제 대학 학위 이상을 가진 고학력 백인들의 51%가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이상 종교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이번 조사자료에는 저학력의 백인들일수록 종교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저학력층은 29%(9% ↓), 중간 학력층은 37%(13% ↓), 고학력층은 46%(5% ↓)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이끈 버지니아대학 사회학 교수인 W. 브래드포드 윌콕스 씨는 "우리의 연구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일수록 종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탈락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현희 기자 hhpark@chdaily.com

성경 받아 들이고 감격의 눈물을...



키미알어로 된 신약성경을 받아 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한 성도 ©UBS 제공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지난해 12월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2009년보다 19개 늘어난 2527개라고 발표했다. 2010년 성서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10개 언어로 더 번역돼 총 469개, 신약은 18개가 더해져 총 1231개, 단편은 827개 등이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교육 수준 높을수록 종교행사 더욱 많이 참석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종교행사에 더욱 많이 참석한다고 미국의 한 연구진이 밝혔다.

미국 네브래스카-링컨 대학 사회학과 필립 슈와델 교수팀은 '종합사회조사'(GSS)에 참여한 수천명의 미국인 응답자들을 분석해 21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종교적 예식에 참가하는 비율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을 읽을 확률도 9% 정도 높아졌다. 또한 어떤 종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행위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선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특정한 종교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국인들의 일반적 통념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진행한 슈와델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이 종교에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kim@chtoday.co.kr

LA 오토덴트

LA AUTODENT GRAND OPEN!

오토덴트

&

바디리페어

오토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덴트라 합니다.

➔

BEFORE

AFTER

오토덴트의 원리
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덴트의 필요성
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 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흡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 기분좋은 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타운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스터디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토)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후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韓-中 교회, 다가오는 '선교중국' 함께 준비해야

제3회 미션 차이나 개회... 중국 교회 현안과 선교 이슈 논의



‘선교중국 2011’ 대회가 17일 경기도 용인 ACTS21 비전 빌리지에서 2박3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선교중국 제공

150년여만에 선교 대상에서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된 한국을 이어, 약 200년 선교 역사를 넘어 중국도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할 날이 고대되고 있다. 바로 중국선교에서 선교중국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선교중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중국(Mission China) 2011' 대회가 17일 경기도 용인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시작을 알렸다. 선교중국 대회는 2007년부터 2년에 한 번 선교중국의 비전 아래 중국교회와 세계 화교교회, 한국교회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개최돼 왔다.

'선교중국'은 대회 성격상 중국에서 개최해야 하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서 열려 왔으며, 한국중국선교협의회(KCMA)가 주최하고 있다. '함께! 열방을 향하여!'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제3회 대회는 앞선 두 대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화교권, 한국 선교 및 교회 대표자 컨퍼

런스와 중국과 세계선교 관심자들과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대회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15일부터 전체대회 시작일인 17일까지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대표자들간의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선교중국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가 이뤄졌으며, 전체대회는 앞으로 2박3일간 오늘날 중국교회의 현황 및 중국 내 다양한 선교적 이슈들을 주제로 하는 강연들과 선교중국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심는 집회 등의 일정으로 계속된다.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3억으로 추산된다. 그 중 기독교인은 약 1억만 명으로 전체의 약 8%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과 교인 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중국의 복음화율이 2024년경 10%를 넘어서고, 2049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음화율 10%는 한 나라의 교회가 자립하며, 15%는 선교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선교중국의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선교계는 마지막 때 세계선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있다. 교인 수에서뿐 아니라, 핍박을 견디며 성장했으므로 핍박 받는 지역 선교에 유리하고, 중국 안에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등을 믿는 소수민족이 많아 이들 종교를 선교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중국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먼저 선교강국에 이른 한국교회의 역할과 양국 교회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형제(한국 초기 선교사) 역시 "한국과 중국이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두 나라 모두 근대 들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내고 있

“포털사이트의 안티기독교 방치 사회적 조장하는 것”

교회언론회, 악의적 내용 삭제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한국교회언론회가 각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기독교에 모욕적인 내용들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이익만 내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7월 26일 각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각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체 약관에 두고 있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조치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모독하며,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용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삭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

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인터넷 업체들의 협의기구-이하 자율기구)에서는 8월 16일 회신을 보내, ‘처리 불가함’을 통보해 왔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인, 정치인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정계시물을 지정하지 않고 요청하는 포괄적 삭제는 자율기구의 정책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답변을 보내온 자율기구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기구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 자율기구가 주장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위해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일례로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 밑에 온갖 음란과 성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야말로 낮이 뜨거울 지경인데, 포털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게 포털들의 사업방법이며, 윤리인가를 묻고 싶

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포털 사이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 매출 수천억 원에서 1조원에 가까운 회사가 유해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이를 문제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악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며, 악덕업자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이 사회공익은 도외시키고, 자사이익을 위해 ‘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악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활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제는 ‘쉬쉬’한다고 인터넷 환경과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며, 여러 대처수단을 강구하여, 인터넷 문화를 바르게 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dwlee@chtoday.co.kr

며 교회가 점차 사회와 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동일하게 선택받은 두 나라 교회를 통해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피상적인 데 그치지 기보다는 실질적인 준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기조강연을 전한 L형제(중국교회 지도자)는 “

중국과 한국교회 간 형식적 교류와 구호만으로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의식 하에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선교를 위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얼마나 준비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갈지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를 예서와 같이 대회장 내에서 중국선

교 단체들의 박람회와 여러 중국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교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퉁이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CMI), 중국어문선교회(CTG), 중국대학선교회(CUM), GP선교회, WEC International 등이 참여 중이다.

손현정 기자

라이즈업코리아, ‘또 한 번의 도약! 메의도 광장으로!’

세부 일정 확정하고 매일 새벽기도로 준비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마다 만들어지는 십자가 불빛. ©크리스천투데이 DB

라이즈업무브먼트(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 이동현 목사)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라이즈업코리아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2011 라이즈업코리아 918 페스티벌(대회장 김은호 목사)’는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청소년·청년 및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올해 라이즈업코리아는 ‘또 한 번의 도약! 여의도 광장으로!’를 주제로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가수 김연우·육주현, 해병 출신 가수 이정과 얼마 전 신곡을 발표한 J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주최측은 여의도공원에서 행사가 마련된 것에 주

목하고 있다. 대회는 지난 2004년 1회 대회(잠실주경기장)를 제외한 지난해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돼 왔다. 이들은 “1970년대 우리 민족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불씨를 촉발시킨 것은 1973년 여의도광장에서 1백만명 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빌리그래함 전대회였다”며 “민족의 영적 위기 앞에 맞선 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2011 라이즈업코리아 918 페스티벌을 통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라이즈업무브먼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엑스플로74,

민족복음화성회, 세계복음화대성회 등이 열린 여의도광장은 민족의 미스바 광장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어느새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고 형식과 겉모양만 남은 채 영적 동력을 잃고 있다”며 “특히 한국교회 다음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적 상황은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고교 졸업 후 80%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한 채, 1970년대 ‘기적의 역사’는 역사 저편에 잊혀져 한 치 앞도 희망적으로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절망 가운데 있다”며 “다시 모여 민족을 일으킬 진정한 회개와 부

르짖는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중·고등학교 동아리 및 교회 중·고등부 20여개 팀이 함께하는 라이즈업 청소년 페스티벌이 식전행사로 치러진다. 본 대회에서는 라이즈업워십밴드의 찬양 및 예배, 이동현 대표의 설교, 게스트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부터 매일같이 오전 6시 30분부터 대회가 열릴 여의도공원에서 새벽기도를 실시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예비집회를 갖는다.

이대용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무릎팍’에서 ‘어메이징...’ 부른 박정현, 그게 바로...

‘기독교 음악인 멘토’

박태남 목사의 문화 이야기

방송분마다 화제를 몰고 왔던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출연하는 원년멤버 김범수와 박정현, 윤도현의 공통점은?

이들의 졸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나가는’은 문화의 힘,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깨우쳤다. 가수들의 열창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TV 속 ‘청중평가단’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부흥회’나 ‘찬양집회’를 보는 듯했다. 기독교 음악인들의 ‘멘토’ 중 한 명인 박태남 목사(벧엘교회)는 이에 대해 “이미지메이킹 뺨침”인 기독교가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 틀림없다”며 “기독교는 막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목사는 미국 유학 시절 미주복음방송(GBC)에서 3년여간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던 경험으로 극동방송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 ‘나가는’에서 크리스천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문화사역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가는’을 보면 알 수 있듯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사실 기획사에서 막는다는 이유도 있다. 막는 데는 충분한 보답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지난변인가, 김범수 씨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부르고 들어왔다. 김조한 씨가 “거룩했어”, 박정현 씨는 “은혜받았어” 한 마디씩 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런 걸 광장히 막는데도, 나왔다. 해외에서 좋은 일 하는 선교사들을 취재하면서도 ‘하나님’ 단어를 말도 못하게 하는데 말이다. 가끔 크리스천 코미디언들이 한 마디씩 토크 던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여는 거다.

지난주 MBC <무릎팍도사>를 보셨나? 기독교인들 입

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의 진행자에게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받는 거기에 박정현이 나왔다. 어떤 측면에서는 ‘목사 딸이 거기...’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곡 부탁하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더라. 보면서 눈물이 났다. 굉장히 의미있다고 본다. 어쩌면 그곳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구역일 수 있다. 박정현을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노래 하나로 ‘무당’들을 녹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던 장면이라고 할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약해서 거기에 감동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에 있을 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우승했을 때 허샤이저라는 선수가 유명한 ‘하니 캅스 쇼’라는 곳에 나왔다. 노래를 불러달랬더니 ‘독솔로지(doxology)’를 불렀다. 청중들이 모두 일어섰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뜻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 일어났다. 독솔로지란 송영, 쉽게 말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찬송가 1장)’ 하는 노래다. 완전히 추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찬송을 부른 것이다.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지난 5월 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 유희열 씨가 출연해 화제가 됐는데.

“돌파구라고 해야 하나, 와플(WAFL)이라는 단체가 있다. 오늘(20일) 후원의 밤 행사를 한다. 와플은 일반 문화영역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을 사역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단체다.

와플을 하면서 함춘호 씨도 힘들어하는 게, 기획사가 끼면 안 된다. 유희열 씨랑 루시드 폴이 출연했지만, 함춘호 씨가 개인적으로 부른 거였다. 기아대책이 주최하는 필리핀 돕기 자선콘서트라 취지도 좋았기 때문에 선택 나와주셨다. 사실 그 분들 크리스천도 아니다.”

-기독교 문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사실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요새는 바둑으로 말하면 몇 점 접어주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차포 다 때고 들어가는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와 목회자 중에 과학자를 더 믿는다. 과학자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앙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시대다. 사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서 믿는 것 아닌가? 다 아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기적을 믿게 하고 설명하는 데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기독교다.

함 집사님(함춘호)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세시봉 열풍 때문에 다시 바빠졌다. 옛날 통기타 문화도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한류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전략을 이야기하지는 것이다. 김조한, 박정현, 김범수, 윤도현, 임재범... 그들에게 왜 교회 와서 간증하지 않느냐고 하지 말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

교회 문화가 아니라, ‘크리스천 문화’를 세워야 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문화 말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대부분 ‘내 삶에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고 반응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내가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맹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만드는... 누구에게 소망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건 별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 내 삶의 빈 항아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순종,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데 사실 숨겨진 장의 ‘세컨 페이지’는 ‘내가 포도주가 될래?’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울려 퍼져야 한다.”

-스키드라마와 영상 촬영, 시리즈 설교 등 다양한 예배 형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변할 수 없지만,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영화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빠르면 1-2년 후 뒤회박을 하려고 한다.

목회의 최종 목적은 변화가 아닌가? 찬반론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나쁜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이신가? 지금도 계속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다. 예배도 그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성도들 가슴 속에 남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미지메이킹에 신경쓸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문제조차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을 수만 있다면... 하는 진지한 고민으로 봐 달라.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파격적인 분이셨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던 구절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 봤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 가르친 구절이 있나? 확실한 가르침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뿐이다. 돈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구절은 오히려 많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대부분 구약의 제사, 형식의 경우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톨릭은 구약 제사 형식에서 따온 게 많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2천년 그리스도의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시되는 것이다. 연구하면 나올텐데,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책도 별로 없다.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된다. 본다. 뭔가 우리가 찾아야 할, 예배의 잃어버린 핵심이 있다.”

이대용 기자
dwlee@chtoday.co.kr

90세 이상식 박사, <세계 교회사 이야기> 출간



이상식 박사 내외(앞줄 왼쪽에서 4·5번째)와 참석한 직계 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올해 90세를 맞은 한신대 명예교수 황범 이상식 박사의 신간 <세계 교회사 이야기>(VERITAS PRESS)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2백여명의 교계·학계 인사들과 제자·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리타스 프레스 출판사(<http://www.veritas.kr/>) 주최로 열렸다.

이상식 박사의 동서양을 아우른 <세계 교회사 이야기>는 평신도를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는데, “이제는 교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질을 갖춰 교회의 파수꾼이 돼 지도력을

발휘할 때미로 평신도들이 반드시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저자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방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사역이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신대를 정년 은퇴한 이후 70세가 넘는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신학교 교수로 14년간 선교활동을 했던 저자의 경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저작이다.

출판기념회는 황성구 명예교수(한신대)의 성경봉독 이후 강근환 전 총장(서울신대)이 설교했다. ‘교회사와

동서양을 아우른 2천년 역사 담아내

복음(행 1:8, 갈 1:8, 11-12)을 제목으로 설교한 강 전 총장은 “교회는 예수의 증인된 사도들의 행적 기록인 사도행전의 연속이고, 그 주제는 바로 성령의 눈으로서만 믿을 수 있는 진리인 복음”이라며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 엄히 경고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고 사도행전을 계승하여, 그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깊이 간직 하고 전승하는 사명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기 총장(감리교신학대학교)은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90세에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놀라운 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이 책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성숙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서평을 전했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감석찬 초동교회 전 담임목사,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김영현 숭실대 교수, 김이곤 한신대 명예교수, 김주환 한신대 교수, 김창락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장, 김흥영 강남대 교수, 박진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 백형기 기장증경총회장, 이덕주 감신대 교수, 이재현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장, 장재형 美 윌리엄스대학교 전 총장, 주재용 한신대 전 총장 등 이상식 박사의 제자들과 진보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대용 기자 dwlee@chtoday.co.kr

한기총, “공영방송, 동성애 미화 자제해야”

KBS 드라마 ‘클럽 빌리티스의 딸’에 유감 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여성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룬 KBS ‘드라마 스페셜 - 클럽 빌리티스의 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기총은 최근 KBS에 방송한 서신을 통해 “이번 드라마는 부분적으로 동성애를 표현하던 기존 드라마와는 달리 여성 동성애 자체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어 동성애를 미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영방송인 KBS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은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드라마 내용 중 여고생의 등장 등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기총은 ‘클럽 빌리티스의 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추후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용 기자
dwlee@chtoday.co.kr

BiF 보루네오가구

여름 맞이 SALE

3개월간 동시

HOT

▶ 침대점용 소파
\$429 → \$299

HOT

시몬스 매트리스 특별세일 \$699
Queen Size Mattress Only \$399

HOT

메모리를 줄여준다-들어서요? 메모리폼 매트리스 특가세일!!
Queen \$399 King \$499 Full \$299

HOT

기존의 신발장보다 더 크고 튼튼합니다. ▶편리한 신발장 \$99

HOT

사무용 의자 \$89

HOT

사무용 의자 \$109

HOT

DR7500 Fabric \$289 DR250 Fabric \$249
▶ 5단 서랍장 (B015) Reg. \$355 → \$189

HOT

▶ (Queen Size Bed only) ▶ 보루네오 ▶ 이요리 예코 침대 \$799 → \$499

HOT

▶ (Queen Size Bed only) ▶ 상층 2고양이 ▶ 보루네오 침대 \$399

BiF 보루네오가구

▶ Los Angeles 매장
965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323) 731-7777

▶ 몬테벨로 아울렛
717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323) 888-0215

▶ 옐로스카운티 매장
14190 Beach Blvd.
Westminster, CA 92683
(714) 379-2800

남성수 칼럼

분노



남 성 수
오렌지카운티한국교회 목사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세가지의 기준을 히브리말로 '키스, 코스, 카스'라고 부른다. '키스'라는 말은 돈주머니를 뜻한다. 즉 돈 쓰는 법을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를 통해 평가된다.

두번째 기준인 '코스'는 '잔'을 의미한다. 술마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늘 음식과 함께 먹는 식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즉 술은 어디까지나 음식으로 점잖게 마시고 점잖게 끝내야 하는데, 술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술의 노예라 부른다. 이들은 술만 들어가면 소나 돼지처럼 변하고 사리분간을 하지 못한다. 술 앞에 행동과 말이 절제되지 않는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음식에든 언동에든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술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것을 못한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술에 대한 절제능력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 기준인 '카스'는 분노와 관련된 단어이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바람직한 인격의 소유

자라는 것이다. 제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인격자라 할 수 없다. 이 감정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다 된 일을 그르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관심은 바로 이 세번째에 있다. 목사가 된 이 세상, 돈과 술의 문제 앞에는 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력 때문인지 좀처럼 돈과 술의 문제와 부딪힐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번째는 아직도 잘 안되는 것이 술직한 고백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족들에게 불쑥 화를 낼 때가 있다.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 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화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나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게 신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도 늘 사역을 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고민이었던 것 같다. 선교를 그르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관심은 바로 이 세번째에 있다. 목사가 된 이 세상, 돈과 술의 문제 앞에는 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력 때문인지 좀처럼 돈과 술의 문제와 부딪힐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번째는 아직도 잘 안되는 것이 술직한 고백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족들에게 불쑥 화를 낼 때가 있다.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 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화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나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게 신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도 늘 사역을 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고민이었던 것 같다. 선교를 그르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관심은 바로 이 세번째에 있다. 목사가 된 이 세상, 돈과 술의 문제 앞에는 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력 때문인지 좀처럼 돈과 술의 문제와 부딪힐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번째는 아직도 잘 안되는 것이 술직한 고백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족들에게 불쑥 화를 낼 때가 있다.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어 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화를 낼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나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박성근 칼럼

김영길 칼럼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



박 성 근
LA한인침례교회 목사

나이가 든 벌목꾼은 조금 미심쩍었지만 그 톱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가게를 찾아 왔습니다. "하루에 나무 열 개를 자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어깨가 빠지도록 일했지만 한 개밖에 자르지 못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철물점 주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전기톱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채 톱질만 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전기톱이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재래식으로 톱질을 하면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에 연결된 스위치를 틀면 엄청난 힘으로 나무를 잘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일을 하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

게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위치를 틀면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 가져오게 하는 스위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무한한 인생도 기도의 스위치만 틀면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기도의 스위치만 올리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원천이요, 앞서간 신앙의 영웅들이 남겼던 간증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기도만 하면 동일한 역사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축제의 현장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름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붕 위의 바이올리니스트(Fiddler on the Roof)"입니다. 1905년경, 소련이 공산화되어갈 때에 유대인 부부가 다섯 명의 딸들을 시집보내면서 경험하는 일상을 다룬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남편 테비에와 아내 골디가 딸의 혼사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해?"하고 묻는 장면이 다음과 같은 노래가사로 엮여집니다.

(테비에) "골디, 나는 '폐'이 우

리 딸 '호텔'과 약혼하도록 허락했소." / (골디) "뭐라고요? 그는 가난해요. 정말이지 빈털터리라고요." / (테비에) "골디,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나도 그 아이가 좋아.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호텔'을 사랑하고, '호텔'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데 우리가 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제 신시대야. 사랑은....., 골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 (골디) "뭐라고요?" / (테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 (골디) "당신 바보로군요." / (테비에) "알아....., 그런데 당신 날 사랑해?" / (골디)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지난 25년 동안 나는 당신의 옷을 빨았고, 당신의 음식을 만들었고, 당신의 집을 청소했고, 당신의 자식들을 낳아주었고, 젖소의 젖을 짜주었는데, 이제 25년이 지난 후에 왜 새삼스럽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테비에) "골디,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결혼식 날, 나는 겁이 났어요." / (골디) "나는 부끄러웠어요." / (테비에) "나는 초조했지." / (골디) "나도 마

찬가지였어요." / (테비에) "그러나 나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묻는 거야. 골디, 나를 사랑해요?" / (골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 (테비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당신 나를 사랑해요?" / (골디, 혼잣말로) "내가 그를 사랑할까? 25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아왔고, 싸워왔고, 굶주려도 보았고, 25년 동안 내 침대가 그의 것이 되었고, 만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지?" / (테비에)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거지?" / (골디) "그런거 같아요." / (테비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거 같아." / (두 사람이 듀엣으로)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25년이 지난 후에 그걸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야."

중년을 지나면서 새삼스럽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온 바로 그 긴 시간들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주개혁신학 개교 20주년 기념

1-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조주호 칼럼

[신앙논단] 큰 교회안에 작은 교회들



조 주 호 리폼드 대학교 대학원 총장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대의 명분을 지키는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것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때 이루어 집니다.

바울이 본 아덴은 종교성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교회안으로 부름을 받는 성도들은 신앙의 혼돈을 가지게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인간의 결정으로 부터 시작하는 행위가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 기독교의 신앙관이 유일신 하나님께 대

한 신앙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시 하는 동안 교회안에는 서로 다른 이론과 신앙이념으로 인한 작은 교회들로 구성 되어지고 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신학과 신앙관이 서로 다르게 고백되고 가르쳐 질때 오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큰 교회라는 틀안에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다른 예배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현실속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목적으로 자기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큰 교회라는 틀을 벗어 나지 않는 적당한 명분이 있을뿐 그 예배 목적이 서로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 발전해 가고있으면서 분리되지 않은 교회 모습속에 분리된 작은 교회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수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목회나 선교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담임 목사가 각각 인도하는 그룹은 극히 제한된곳이 너무 많습니 다. 교회 제도중 담임목사를 Pastor 라 칭하고 부교역자를 모두 Minister라는 호칭

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느교회든지 오직 한분이 라는 명백한 제도를 보면 부교역자는 목회자의 목회 목적을 도와서 교회 예배를 위한 사명을 다하고 선교의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큰 교회 목회자는 작은교회 교인들보다 부교역자를 더 많이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목회라고 하기보다는 선교라는 명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한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한국에는 대형 마트가 생기는 곳마다 골목에 작은 상점들이 수없이 폐업을 한다 고 합니다. 대형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에도 힘들게 개척한 작은교회들이 교인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의 명분은 있지만 마치 대형마트가 소형가게를 모두 흡수하는것 같이 이웃없는 지도자들의 무분별 한 행동으로 큰교회는 이룬다고 생각 하지만 바로 큰 교회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서로 목회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색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공존하는 교회관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건강 칼럼

당뇨와의 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1세기의 대재앙으로 등장한 당뇨병 대체 무엇인가? 현대 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도시는 자동차와 고층건물들로 가득 차고, 개인들의 생활 수준도 좋아져 참 많이 편리해 졌습니 다. 그런데 인류는 차츰 도시 생활위주로 바뀌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 오던 생활 습관과 식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무서운 현대병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비만과 의 전염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당뇨병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료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원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가는 연료가 불량품이라면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포함 되어 있으면, 우리 몸 속에 피가 탁하고 끈적거리게 되어,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고, 원래 취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포도당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인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자연요법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당뇨병은 병원에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당뇨병은 물론이고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혈액에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식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섭취한 음식을 완전 연소 시켜주어야 합니다.

과식은 또다시 혈당수치를 높여주고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튜어와 약물요법으로 혈당수치를 낮출 수 밖에 없 습니다. 또다시 먹은 음식은 혈당수치를 높여주고, 인슐린 주사 맞고, 혈당치 낮추고 이와 같이 반복되는 방식으 로는 도저히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혈당수치를 낮추는 방식의 치료방식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혈당수치의 혈액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대략 120일에서 150 일 지나면 새로운 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영양학계에서는 주로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에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만성대사병(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취장의 기능과 인슐린저항성의 기능을 개선시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미량영양소(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미량영양소는 곡식의 껍질과 씨눈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곡물의 껍질과 씨눈을 모두 깎아내 버린 정백식품(백미)가 범람하고부터는 미량영양소가 절대적으로 결핍되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당뇨 같은 식원병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량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이든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먹거리를 주셨을 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과일, 곡식 전부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1: 29)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는 수명 과 건강을 좌우하는 유일한 중요 영양소입니다. 효소는 생체 활성물질로서, 그 생체체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제어합니다.

섬유질은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배설이 촉진됩니다. 즉 소화와 흡수, 배설이라는 중요 생리대사를 조정해 주는 기초 물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의 중요성은 생명 유지에 필수 영양소라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당뇨에 좋은 식품을 골라, 먹기 좋은 식단을 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세흥허브에서 출시하여 폭발적인 선봉을 일으키는 균형생식환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그리고 섬유소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특수 공법으로 제조하여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그대로 먹을 수 없기에 섭취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균형생식환은 당뇨병 치료에 이상적인 천연식품입니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 당뇨병은 불치병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안이하게 받아드린다면, 한편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면, 실명하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그 효능의 탁월성이 수많은 체험사례를 통해 입증된 균형생식환을 권해드리오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윤(Andrew Yun) 드림 전 화문의; 213-272-4454 web-site : www.seedcure.info Email; yun-jungwon2004@yahoo.com

권 준 칼럼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인생



권 준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

8월도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무더웠던 한국의 여름도 한풀 꺾인듯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곳의 날씨에 적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곳에서 장인이란이 한국의 국민으로 다시 돌아와 사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한가지씩 잘 해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가지의 일이 더 남아 있고, 저는 목요일에 시애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에는 대전에 있는 국립 현충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장인이란의 부모님, 제 아내의 조부모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조부님은 독립유공자 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장 된 것이 2000년의 일이라 장인이란도 그곳에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장인이란을 모시고 먼 거리이지만 대전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서 수많은 묘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독립유공자들도 계셨지만 그외에 한국전쟁이후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묘비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조부모님을 모신 곳 바로 옆에는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일들을 결코 이 나라가 잊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곳에 묻고 묘비를 세우고, 꽃을 꽂아 놓으며 그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일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나라의 뜻을 그 국립현충원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 움이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의 값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들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것도 멋있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죽음도 후세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후세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가슴이 찡해 움을 느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 한 주였습니다.

형제의 삶의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시며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멋지게 이루어 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이 찡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시는 형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학력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노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8월 2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 및 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영일보/인턴트 웹사이트(www.koreatalk.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굿바이 Summer 이벤트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1년 8월 31일까지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AT&T, Verizon 가용용 전화 완전대체!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산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0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24.99 /월 (월별 사용량)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지역 번호도 필요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통서비스가 필요없다! 핸드폰에도 국제전화 가능! 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플랜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별 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전화	무제한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별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12개월 총 금액	\$299.88(수수료 포함)	\$312.00(수수료 별도)	\$635.88(수수료 별도)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2.2902

30일 환불 보장!

*3개월 무료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예치하는 경우 위약금(\$69.99)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보상 받은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 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 넘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T:562.483.4300 / www.compassion.or.kr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치시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계통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국제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 등 미국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9.7216**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Hansol Senior Service, Inc.
www.hansolins.com Lic. #0E52100

We know Medicare

메디케어 신청?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8개월 전부터 CMS로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만일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은 65세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10년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서 필요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어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과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솔 시니어 서비스는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로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메디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011년 기준 \$15.40) 그러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면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서 면제가 되며, 또한 파트 D 처방약을 받으실 때도 원래의 메디케어 플랜에서 지불 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처방약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한달 개인 소득이 \$908, 부부 \$1226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1대, 집 한채, 가재도구, 장례비용 \$1,500까지는 제외됩니다. 개인 자산 개인 \$6,680 부부 \$10,020를 초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EXTRA HELP PLAN

본인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메디칼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EXTRA HELP 플랜을 통하여 처방약 비용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메디케어에서 지불하는 처방약 금액보다 저렴하게 처방약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메디케어 플랜에서 적용되는 도넛 홀이라고 하는 본인 부담금도 면제 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EXTRA HELP PLAN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개인 한달 소득 \$1,361 부부 \$1,839 이하이거나 개인자산 \$12,640 부부 \$26,260 이하인 분들을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메디케어 HMO 플랜이란?

HMO 플랜이란 보험 가입자가 주치의를 통하여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는 내과사이지만 다른 분야의 진료 행위를 받으실 경우에도 주치의 추천에 의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2차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장점은 의료행위시 본인이 부담금이 저렴하여 추가적인 의료 혜택 즉 치과, 시력검사, 한방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의료행위가 주치의를 통하여 하고 PA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한 플랜입니다. 물론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처방약 보험료의 지불이 필요 하지 않고,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많이 메디케어를 100% 보험 보장하는 플랜입니다.

메디케어 PPO 플랜이란?

PPO 플랜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이 일반 의사나 전문의를 직접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의 PPO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보장되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여행이나 친지 방문 중에 의료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와 같이 PPO로 보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행위시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HMO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하며, 의료행위 발생시 1년에 \$300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의 보험 선택은 크게 2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첫번째가 메디케어 SUPPLEMENT 보험입니다. 미국 전지역에서 그 보험보장이 PPO 플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MEDICARE PART C PPO 플랜처럼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달 본인이 지역에 따라서 메디케어 부족분 20%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만 거주하신다고 한다면 MEDICARE PART C PPO 플랜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는 1년에 병원 방문이 7회로 제한되면 응급실에 방문시 \$50 병원 입원시 하루에 \$100 그리고 처방약의 처방도 제한시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스러워 지려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HMO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MED-CAL MANAGED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승인 후 11월 1일부터는 메디칼의 혜택이 현저히 축소가 되며 그 이후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이 보장이 됩니다. 즉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1월까지의 본인의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 메디칼 예산안이 시행이 되는 1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PART C 플랜이나 아니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MED-CAL MANAGED CARE 플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란

저희 한솔은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가 도와드립니다.

- 65세 이상 시니어의 생명보험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시니어의 장기간호보험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시니어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연금 플랜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렉터



데이빗 강 213.500.4563
Lic:0F16211

플러튼 지역



홍미영 714.715.6345
Lic:0672051

사우스 베이 지역



김명신 310.720.0134
Lic:0D01402

샌디에고 지역



김정욱 858.866.8735
Lic:0G32632

다이아몬드바 지역



김선화 909.731.3091
Lic:0D73357

주최 : 한솔 시니어 서비스 (주) 3598 Beverly Blvd. LA, CA 90004

고객 문의 : 800-300-0703, 213-500-4563